

농촌 가족의 문제와 가족관계 지도방안

최 규 련

수원대학교 가정관리학과교수

I. 농촌 가족의 변화와 가족의 문제

1. 농촌 가족의 변화

최근 20여년간 급속한 이농현상으로 농가인구와 가구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젊은 층이 학업, 직업 등의 이유로 농촌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연령구성은 젊은 층과 청장년층이 차지하는 구성비가 낮아지고 60세 이상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직계가족의 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인단독가구가 증가하고 있다(최양부·오내원, 1992; 농촌진흥청, 1996). 핵가족형태는 증가하지만 도시와 달리 성년의 자녀가 집을 떠난 축소형 2세대 핵가족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족원들이 늘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줄어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지역을 떠난 자녀와의 연계는 여전히 중요하여서 경제적인 도움과 명절이나 휴가철 방문 등의 교류는 빈번하게 유지되고 있다.

농업노동에서도 남성은 점차 일일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반면 여성의 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있어 농업노동인구의 여성화와 노령화가 현저해지고 있다(김태현, 1996; 최혜경, 1997; 조록환, 1997).

자녀교육의 기능에서 아동, 청소년 인구의 감소로 교육적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경제력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도시로 보내거나 자녀교육 때문에 이농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성년이 된 자녀들은 학업, 결혼, 직업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기 때문에 토지의 상속이나 농업계승의 중요성이 퇴색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녀교육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가족가치관의 경우 과거에 비해 전통적인 가치관이 약화되고 있고 부부간의 관계는 더 긴밀해지는 경향이다. 과거에는 부부관계가 자녀의 성공 다음으로 행복에 중요하다고 하였으나 최근에는 부부관계를 자녀의 성공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주숙, 1990). 이는 부부중심의 핵가족 가치관의 영향도 있지만 생산노동의 참여형태와 참여과정이 부부단위로 이루어짐으로써 부부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고 일상생활에서 부부간의 협조체제가 필요해지는데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아직도 도시에 비해 가부장적 가치관이 상당부분 잔존하며 가족주의적 사고방식이 아직도 지배적이다. 예를 들면 제사관, 장남과 남아위주의 상속관, 부모 위주의 자녀관, 전통적인 성별분업적 자녀관, 부부유별의 가치관, 시대위주의 혈연관계 중시, 남성의 권력 우위경향, 남녀별·세대별 위계 강조 등이 그러하다.

2. 농촌 가족의 문제

농촌가족의 문제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농촌여성의 역할과중, 자녀교육 환경의 열악, 노인단독가구의 고립문제 등이 대표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데(한국여성개발원, 1993) 본 고에서는 부부문제, 자녀문제, 노인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1. 부부문제

첫째로 부부간의 역할불균형과 아내의 역할과중 문제가 있다. 농촌 전반의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부부가 협력적으로 농사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내는 과거보다 농사일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다. 실제 전국 농촌 여성의 과반수 정도가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을 전업주부로 인식하고 농사일을 남편의 보조적 역할로 생각하고 남성에 비해 농업기술이 부족하고 도시여성보다 평균 교육수준이 낮으며 의식구조가 보수적이다(심미옥, 1997). 그 결과 가사일 대부분을 아내가 담당하며 특히 식생활과 아동양육 및 자녀사회화 역할은

여성이 거의 전담하고 있고 남편과의 가사분담 기대수준이 낮고 남편의 분담을 요구하는데 소극적이다. 남편은 과거에 비해 약간 협조적이어서 남편의 3분의 1정도가 가사에 참여하지만 주로 집안손질, 이부자리 정리, 대외적 활동 등을 담당하고 전통적인 여성의 일은 거의 참여하지 않는 형편이다(김경미, 1998).

그러므로 역할구조상 농촌 지역의 부부들은 아내들의 생산노동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남편의 역할변화가 미미하며 아내 스스로도 남편에 대한 기대도 적기 때문에 아내들은 역할과중과 신체적 피곤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특히 아내들의 농업노동참여율이 높을수록, 농업직으로서의 자긍심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사일에 대하여 전통적인 태도를 보일수록, 남편이 가사에 비협조적일수록 현저하였다(김정순, 1994 ; 양순미, 1996 ; 김경미, 1998). 그런데 아내의 생활만족도와 결혼만족도는 남편의 가사협조 정도와 비례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김경미, 1998) 남편의 가사협조가 아내의 역할과중과 신체적 피곤을 예방하는 것 뿐 아니라 결혼의 질 향상에 중요요인임을 알 수 있다. 둘째로 부부간의 지위가 대등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아내들이 농업노동에 참여하여 가계소득에 기여함으로써 과거에 남편이 단독으로 결정하거나 소비권을 쥐고 있던 것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같이 소비권을 가지는 비율이 증가하였다(김주숙, 1990 ; 심미옥, 1998). 이로써 아내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경향은 특히 30 , 40대의 영농후계자 부부나 상업농지역 부부들에게서 현저하다(전정숙, 1994).

그러나 이것이 부부가 대등한 지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남성중심적 가치관이 지배적인 농촌에서 영농 의사결정에 있어서 아내의 실질적 권한이 적고 재산소유 수준도 열악하며 아내들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도도 매우 낮아서 아내의 사회적 지위는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사회전반적인 가부장적 가치관의 잔존, 아내 자신의 의식문제, 아내의 낮은 농업기술과 농기계 기술 수준, 낮은 교육수준, 가사전담으로 인한 과중한 노동양 등에 기인되는 것이다(전정숙, 1994 ; 심미옥, 1997).

세째로 부부간의 불화 문제가 있다. 대개 부부간의 불화는 부부간의 성격 차이문제, 배우자의 나쁜 습관(과도한 음주, 도박, 신체적·정서적 폭력, 외도), 돈문제, 부부간의 대화문제, 성문제 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도시 농촌을 막론하고 공통적인 부부간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옥선화·정민자, 1994). 성격 차이문제는 부부 각자의 상이점들이 부부관계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는 부정적인 상보관계에서 비롯된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이해부족, 비현실적 기대, 고정관념, 힘겨루기, 원가족에서의 미해결된 과제의 영향 등이 성격차이와 관련된다. 이 성격 차이문제는 농촌 주부들이 인지하는 가족관계 문제 중 자녀지도 문제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서 부부관계의 문제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보고된다(조영숙, 1997).

배우자의 나쁜 습관 중에서 특히 남편의 폭력, 외도문제는 남성우위의 가부장적 가치관이 그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며 이외에 인격의 성숙도, 성장기 환경의 영향 등이 관련된다. 이 문제에 대해 아내들 대부분은 참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조기에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악화되고 만성화되기 쉽다.

의사소통 문제는 부정적인 자극과 반응의 교환작용, 대화의 단절, 대화기술과 문제해결능력의 부족, 갈등관리와 분노조절 능력의 부족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잘 듣지 못하는 문제는 남편에게서 많이 발견되고, 자신의 의사와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이 부족한 문제는 아내에게서 많이 발견된다. 또한 분노조절 능력의 부족은 남편에게서 더 많이 발견되며 특히 폭력남편에게서 더 보편적인 현상이다(최규련 외, 1997). 의사소통 문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농촌 주부와 지도자들의 교육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은(조영숙, 1997) 가족관계 문제해결에 대화법의 개선이 필수적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 불화문제가 건설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화병이나 정신장애를 야기시키고 배우자의 가출이나 별거, 이혼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며 자녀에게 부정

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급히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네째로 농촌 부부들은 가부장적 가족주의 문화로 인해 갈등을 느끼며 특히 아내들의 경우 더 그러하다. 즉 노부모 부양 또는 친척관계, 효와 형제우애, 여성의 일방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문화, 아들 선호사상과 장남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은 것 등으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를 겪는다. 농촌에서 시부모를 부양하는 부부들은 동거하든 별거하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아내들이 자유롭지 못한 생활과 자기희생을 통한 친척화목이 중시되는 가정분위기에서 더 스트레스를 겪는다(윤순덕, 1997; 한국여성개발원, 1993). 경험적 연구결과는 아직 없지만 아내들만 아니고 남편들도 이런 문화규범으로 인해 갈등과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

이상의 문제와 관련지어 아내들의 대응방법을 고찰한 연구(양순미, 1996)에서 아내들은 남편의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불평등한 지위와 남편의 언어적 폭력, 성격차로 인한 무시와 방해문제에 대해서는 회피와 체념이라는 소극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육체적 피로와 시간부족에 대해서는 전이와 오락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대응방법은 문제와 갈등을 악화시키기 쉽다. 더욱이 농촌 주부들은 의식구조가 보수적이고 가족문제를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와 갈등이 잠재되고 심각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그러므로 문제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도가 필요하다.

2. 자녀의 문제

첫째 자녀교육환경의 열악으로 교육의 질 저하와 부모의 자녀교육 기능의 약화가 초래되고 있다. 농촌에서 자녀교육의 어려움은 이농의 주요 원인중의 하나이다. 즉 가속화되는 이농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학교규모가 축소되어 학교의 통폐합 및 복식학급 운영이 이루어지며, 교육시설 투자나 우수한 교사 확보, 학생들의 통학거리 면에서도 도시에 비해 열악한 상태이다. 물론 자연환경 속에서 생활하므로 정서순화면에서 도움이 되고, 학급규모가 적어서 학생들의

개별지도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도시 학교에 비해 특별활동이나 과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선의의 경쟁체제를 형성하지 못하며 과목상치 교사가 있는 등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력저하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최양부·오내원, 1992; 한국여성개발원, 1993; 채용학, 1994). 이러한 경향은 학령 전 유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하여 보육시설도 소규모이고 자연부락 단위로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아동의 등하원용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나 농가소득이 낮아서 인건비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므로 보수문제로 우수한 교직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게 된다(박인선·안지연, 1995).

학교환경의 문제외에도 농촌에는 도서관,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과 여가시설이 부족하여 교양함양 기회가 역시 제한된다. 그리고 농업생산의 중요한 단위인 노동력이 가족단위로 동원되기 때문에 농촌지역 자녀들은 방과후에 공부보다 농사일이나 가사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농촌의 자녀들은 물리적 환경이나 심리적 환경면에서 교육조건이 열악한 상태라고 하겠다(이건순, 1998). 그래서 더 나은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자녀를 도시에 보내 교육하고 있고 그에 따라 농가의 교육비 부담은 가중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과 지도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둘째로 부모-자녀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자녀의 행동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농촌에서 자녀교육은 가난과 농업에서 벗어나서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은 농경지를 확대하거나 좋은 주택을 갖는 것보다 자녀교육에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자녀의 성공을 가족전체의 성공으로 동일시함으로써 자녀를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과중한 생산노동을 한다. 그 결과 농사일과 가사일로 인한 어머니의 역할과중으로 자녀와의 질적인 상호작용 기회가 부족하고 조모에게 자녀교육을 맡기다시피하는 경우도 있으며, 아버지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인식과 참여행동도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3). 이는 농촌지역의 부모가 도시지역보다 더 전통적인 자녀관을 지니고 있고, 부모역할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부족한 것에서도 비롯된다(조영숙, 1997).

이처럼 부모들은 자녀를 지도하거나 이해할 시간과 기술의 부족 때문에 자녀 지도가 적절하지 못하고 부모와 자녀간에 원활한 대화가 되지 못하여 부모와 자녀간에 세대차가 좁혀지지 못하며(양순미, 1996), 그 결과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실제로 농촌 고등학생의 스트레스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양희·최희선, 1996). 그리고 이런 문제는 청소년 자녀의 행동문제로 표출될 수 있는데 실제 농촌 청소년의 30%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이건순, 1998). 농촌 부모들은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자녀교육방법, 자녀발달에 관한 지식 등에 대해 교육요구도를 높게 나타냈는데(조영숙, 1997), 이는 자녀문제해결과 예방차원에서 자녀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편 농촌 청소년은 부모세대의 지나친 기대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도시 산업 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가치 규범의식과 현실생활의 괴리감 등으로 인해 행동의 기준이 모호하며, 일관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화과정을 거치지 못하므로 장래에 대해 불안정한 상태와 모순되는 가치관을 지닌 채로 살아가게 된다. 이들은 사회관과 현실만족도 등에서 더욱 비판적이며, 현재 농사일 참여도는 높으나 농업생산직 선호는 매우 낮았다. 그 이유로 교통불편, 문화시설 빈약, 주거불편, 결혼어려움 등이 제시되었고 자녀의 농업생산직 진출에 대한 부모의 기피 현상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건순, 1998).

셋째로 자녀들의 결혼성사가 어려워며 농촌정착이 거의 불투명함에 따라 가족 해체의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정지훈, 1989). 이는 취업과 학업등의 이유로 성혼기 자녀의 도시유출이 많아지고 특히 결혼적령기의 처녀들이 귀하며 있더라도 도시지향성이 강한데 기인된다. 따라서 농촌 총각들은 결혼하기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있고 최근 도시 처녀나 연변의 처녀들을 집단구혼 형태로 농촌 총각과

짜지워주는 사회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생활문화 환경의 차이로 부부불화와 아내가출이 발생하거나 사기결혼에 속는 등 이중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과 예방책은 미시적 차원만이 아니고 거시적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다.

3. 노인의 문제

농촌노인은 도시노인에 비해 비자발적으로 자녀와 별거하여 부부가구나 독신 가구로 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농촌 노인의 문제는 연령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문제는 물론 농촌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독특한 양상을 지니며 미래 농촌가족이 직면할 가장 심각한 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 노인의 문제를 문제 내용에 따라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사회적 문제, 심리적 문제, 노동문제, 생활문제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해볼 수 있다(농촌진흥청, 1996). 본 고에서는 경제적 문제와 일상생활수행 문제, 노동과 여가문제, 부양과 정서적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문제와 일상생활수행 문제에 관해서 보면 영농수입의 감소와 자녀교육비, 결혼비용의 지출증가로 전반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상태이고 생계비나 용돈, 의료비가 심각한 경우도 있다. 이들은 오랜기간의 농사일로 농부증 및 농기계사고, 농약중독문제, 만성질환을 지니며 의료혜택의 부족 등으로 건강관리문제를 안고 있다. 일상생활 수행문제로는 주택의 노후와 기기부족으로 난방과 취사의 곤란, 세탁 및 청소의 어려움, 가계관리의 어려움 등을 겪으며, 식생활, 공과금납부, 외출, 물건사기, 전화걸기 등도 어렵고 힘든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노인부부가구나 독거노인가구에서 심각하고 고령노인의 경우 더 심각하다(윤복자 외, 1990 ; 여성개발원, 1989 ; 농촌진흥청, 1993 ; 박혜련, 1997 ; 최혜경, 1997).

둘째 노동과 여가문제에 관해서 보면 농촌 노인들은 경제적 이유로 계속 농사

일에 참여하고 있고 시간부족과 피곤, 돈 부족, 여가시설의 미비로 인해 여가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 즉 전체 노인중 78%가 농사일에 참여하고 있고 그중 60% 이상이 계속해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데 그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노인의 가구형태별로 차이를 보여서 자녀동거 노인이 독거노인이나 부부동거 노인에 비해 농사일에 덜 참여하고 일 계속 의사도 적으며, 일을 그만두고 싶은 이유도 편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이유로 응답하였다. 반면 노인만 사는 경우는 농사일을 전적으로 도맡아서 하며 70% 이상이 돈이 필요해서 계속 농사일을 하겠다고 응답한다. 자녀와 동거하는 여성노인의 경우 농사일에 바쁜 며느리를 대신하여 가사일과 손자녀돌보기를 거들어주거나 분담하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농촌 노인들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여가로 생각하여서 여가시간이 없거나 집에서 소일한다는 응답이 많으며 이는 독거노인과 여성에게서 더 현저하였다. 여가시간이 있을 때 쉬고 싶다는 응답이 많아서 농촌노인들중 상당수가 농업노동에 시달리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TV나 라디오 시청이 가장 많고 다음 노인정이나 노인교실에 나가기, 친척이나 이웃방문 등의 순이어서 상당히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경제적 이유로 돈이 들지 않는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여성노인의 경우 더 두드러진다(농촌진흥청, 1996). 현재 농촌노인에게 유일하게 도움을 주는 시설은 노인정이다. 특히 농한기에 노인정은 주요한 생활공간이 되는데 장소의 협소, 난방비 부족, 시설 미비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부양과 정서적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농촌 노인은 전통적 가치관을 지녀서 토지는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단독가구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상당수 노인들이 장남과 동거를 희망하고 있고 별거하는 경우에도 장남과의 접촉이 많다. 또한 농촌 노인들에게는 경제적 부양과 정서적 부양, 서비스 부양을 자녀에게 받는 것을 이상화하는 효사상이 상당히 잔존하며 자녀와의 동거가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고 있다(농촌진흥청, 1996; 최혜경,

1997). 농촌 노인들은 일반 노인과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기대와 애착이 크며 자녀의 지원과 자녀와의 관계성이 노인의 정서적 만족감의 요인이 된다. 그러나 성장한 자녀와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일상적 서비스와 지원을 적게 받음에 따라 소외감, 고독감을 많이 경험하고 생활만족도가 낮은 상태이다. 그리고 고부관계나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노인은 외로움이 심각하며 우울증과 자살을 유발하기도 한다(조명희 외, 1997).

실제로 농촌 노인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전화나 대면 접촉을 통하여 정서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다음 경제적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지만 근거리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서비스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 지원은 주로 근거리에서 거주하는 친척이나 이웃, 친구로부터 제공받으며 이들과의 교류관계가 정서적 만족의 근원이 되고 있다(여성개발원, 1993 ; 윤순덕, 1997 ; 조명희 외, 1997).

그 결과 생활만족도와 고독감 등의 심리적 복지수준이 가구형태별로 차이를 보인다. 즉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고 고독감은 가장 낮아서 심리적 복지수준이 가장 높다. 다음 부부동거노인이며 가장 취약한 노인은 독거노인이다. 독거노인은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고독감, 외로움은 가장 높았으며 자녀의 지원에 대해 부정적으로 지각하였다(윤복자 외, 1990 ; 여성개발원, 1989 ; 농촌진흥청, 1993 ; 박혜련, 1997 ; 최혜경, 1997).

한편 노인들 중에는 자녀와의 독립성을 희망하고 서비스수혜자보다 제공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향도 있다(농촌진흥청, 1996). 즉 몸이 약해지더라도 혼자 살거나 그때가서 생각해보겠다는 노인이 30%나 있어서 자녀와의 동거를 기피내지 포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독립성을 유지함으로써 자녀에게 쓸모없는 존재이거나 부담스런 존재로 생각되고 싶지 않다는 사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지원을 많이 받는다고 인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낮고 반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지원을 많이 한다고 인지할수록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일상

생활수행능력이 높을수록 노인들은 고독감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을 통해 농촌 노인에게 활동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노인의 연령, 건강과 경제요인, 자녀요인 등 여러 변인의 영향도 고려해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하겠다.

이상의 여러 문제를 통하여 노인층이 경제적 · 심리적 ·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대책이 필요한 점은 최근 농촌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조영숙, 1997)에서 상담요구도가 가장 높은 문제가 노인문제와 고부문제라고 한 보고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II. 가족관계 지도의 개요

농촌의 가족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크게 상담과 교육, 복지 서비스제공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원리와 활용방안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도방안 분류

1) 가족상담

가족체계를 변화시킴으로써 가족관계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의 성장과 가족의 기능 강화를 돕는 상담방법을 가족상담이라고 한다. 주로 다음의 전문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상담이 이루어진다(최규련, 1997a, b; 김계현, 1997).

① 상담자는 가족의 발달단계와 규칙, 역할,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패턴을 잘 파악하여 가족의 기능수행이 원활하게 되도록 돕는다.

② 상담시에 상담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내담자와의 신뢰적 관계를 기반으로 내담자의 자기 이해 및 자각, 자율성 회복,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증진, 유대감 증진 등을 돕는다.

③ 문제보다는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대처방법에 주안점을 둔다. 즉 관계와 사람, 사건에 대한 관점을 바꾸기, 수용하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대처방법을 선택하기 등을 통하여 감정을 통제하고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돕는다.

④ 모든 인간은 변화하고 상황을 개선하려는 욕구와 능력을 가지며 성공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내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하고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장면에서 개인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개발하고 실제 생활에서 적용시킨다.

상담을 통한 지도에는 대상의 수에 따라 개인상담과 집단상담이 있고 대상의 관계나 문제에 따라 아동상담, 청소년 상담, 결혼상담, 부부상담, 부모상담, 노인상담, 가족상담 등으로 분류된다.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도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관계문제해결을 돕는 상담을 가족상담이라고 한다.

2) 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은 가족으로 하여금 가족의 기능개선과 조화를 촉진시키고, 나아가 가족원의 심리적·정서적·사회적 복지수준을 향상·강화시켜서 가족의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의 잠재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가족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에선 결혼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노인교육, 대화법교육, 성교육, 가족자원관리교육 등이 포함된다.

교육방법으로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1회성 강의를 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방법 또는 이와 병행해서 교육용 도서나 브로쉬, 비디오테이프 등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가족생활교육은 상담보다도 예방적인 차원의 성격을 지녀서 문제예방과 가족의 기능강화를 돕는 지도방법이며, 문제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권장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배출, 프로그램과 교육자료의 개발, 예산지원, 홍보작업을 통한 일반인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양순미, 1996)에서 농촌 주부들이 가족관계 개선에 관한 정보를 방송매체를 통하여 얻는 경우가 47.5%로 나타나 가족생활교육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3) 복지정책 및 서비스 연계사업

주로 거시적으로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시설과 예산, 인력 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개별가족이 적절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지원체제와 연계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노령수당, 생활보호 등의 공적 부조, 농어민 연금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가정봉사 서비스, 학교폭력상담실 등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2. 가족관계 지도위해 고려할 점과 조건

가족관계 지도시 실제로는 상담과 교육, 복지서비스 연계사업을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지도를 위해 고려할 점과 이를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적절한 지도를 위해

- ① 가족문제가 무엇인가 ?
- ② 가족문제의 배경과 지역사회 상황은 어떠한가?
- ③ 문제해결과 관련해서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 ④ 지도를 담당하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는가?
- ⑤ 문제해결의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 ⑥ 어떤 기관과 연계해서 지도해야 하는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농촌의 가족관계를 지도하는 전문가는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 ① 농촌 가족과 가족내의 역동적 관계 및 지역사회 환경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 하고 있어야 한다.
- ② 상담에 관한 이론과 기법들을 습득하여 기본적인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문제에 따라 필요한 전문기관과 연결시켜야 한다.
- ③ 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법령과 정책적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서 가족원이 이용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
- ④ 예방적 차원에서 가족생활에 대한 교육 원리를 잘 적용하여 대상에 필요하고 적절한 내용을 실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Ⅲ. 부부관계 지도방안

1. 상담 접근방법

① 행동주의적 접근

부부 상호간에 교환하는 부적 자극을 줄이고 정적 자극을 증가시키는 것에 목표를 둔다.

② 인지 행동적 접근

비현실적 기대와, 잘못된 귀인을 수정하여 사고방식과 생각, 신념이 바뀌짐으로써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다세대적 접근

성장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고 현재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자신의 원가족을 돌아보고 과거의 부모와의 미해결의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자율적인 존재로서 생활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④ 구조주의적 접근

핵심개념은 경계개념이다. 부부체계가 강화되어 있고 세대간의 경계가 분명히 있는 건강한 가족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⑤ 경험주의적 접근

원가족에서의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하여 현재의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게 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⑥ 전략적 접근, 해결중심 접근

증상에 주목하고 잘못된 해결방법을 수정하여 증상의 완화 또는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결중심 접근에서는 가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 능력과 자원을 발견하여 성공적 경험을 증가시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⑦ 여성학적 접근

이 접근은 여성의 여성다움이 가정중시, 다른 사람에 대한 헌신, 의존성으로

간주되고, 가족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을 여성의 노력부족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의식구조에 대응하는 사고방식을 제공한다.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의존성과 자기 표현 부족은 성역할 사회화과정의 결과라고 본다. 부부간 가사분담문제나 돈관리 또는 갈등해결방법, 폭력행동 등에 대해서도 성역할 사회화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개인의 기본적 태도와 사고방식을 다루며, 평등하고 인격이 존중되고 여성이 자립적으로 자기의견을 낼 수 있도록 여성의 힘을 길러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부부문제 상담시 주의점

결혼과정, 결혼동기,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한 기대와 각오, 현재 부부모습, 희망하는 부부모습, 원하는 부부모습 달성의 장애요인, 부부 각자의 원가족에서의 중심주제와 관계성이 현재 결혼생활과 자녀와의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문제와 관련된 상호작용 패턴, 문제대처 방법과 그 효과 등을 파악해야한다(최규련, 1997b ; 김계현, 1997).

3. 부부문제 유형별 지도실제

1. 아내의 역할과중과 피로 문제

시간관리, 에너지관리, 기계이용정도, 작업환경, 가족의 지원 정도, 남편과 아내의 역할 가치관과 태도, 아내의 신체적·심리적 건강상태, 건강관리방법 등을 파악하고 개선할 점을 찾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아내들에게 스트레스와 갈등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 방법을 상담 교육한다. 예를 들면 아내들이 농업종사자로서 긍지와 직업의식을 갖도록 돕고, 농사와 가사일로 역할과중과 신체적 피곤이 결과되지 않도록 기계화 · 분업화 하는 일, 그리고 남편의 도움과 지원을 요청하도록 자기표현훈련을 하는 일 등이 있다. 또한 갈등에 대해 회피나 행동화, 감정적인 대응방법 등을 사용하기 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하고 대화로 해결하도록 상담교육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 여성학적 접근과 인지행동적 접근을 적용한다.

2. 성격차이와 의사소통 문제

인지행동적 접근을 통하여 인지와 사고패턴을 바꾸고 다세대 접근을 통하여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가능하도록 도우며 행동적 접근과 경험적 접근, 전략적 접근 등을 적용하여 긍정적인 경험과 의사소통을 증가시키도록 돕는다. 이때 부부간의 대화방법을 남편이나 아내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교육하면 문제악화를 방지하고 관계개선을 가져올 수 있어 효과적이다.

3.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갈등문제

구조적 접근을 적용하여 부부체계를 강화시키고 세대간의 연합이 제거되도록 도와서 부부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돕는다. 또한 전략적 접근, 경험적 접근, 해결 중심적 접근 등을 적용하여 문제에 대한 감정적인 대처방법에서 벗어나 이성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하며 자존감이 증진되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여성학적 접근을 사용하여 아내 스스로 삶과 의사결정에서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힘을 기르는 상담교육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행동주의적 접근과 인지행동적 접근을 사용하여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가부장적 문화에서 벗어나 친밀감과 애정을 가꾸고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동반외출과 공동의 여가활동 등을 통해 동반적 관계를 유지하며 관계개선을 가져오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남편들이 위협감이나 거부감없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아내와 협조체제로 지내야할 시대적 당위성을 인식하고 행동화하게 되어 부부가 한 팀이 되는 것이 문제해결에 중요하다.

4. 기타 문제에 대한 지도

① 가정폭력문제

부부간의 폭력은 흔히 부부싸움으로 인식되어 결혼생활중에 있을 수 있는 일로 간주된다. 그러나 부부간의 폭력은 범죄이다. 이번 7월부터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과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이 동시에 시행된다. 가정폭력에는 대표적으로 신체적 · 물리적 폭력이 있지만 이와 병행해서 정서적 폭력, 언어적 폭

력, 성적 폭력 등이 발생되며 대부분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많다. 남편의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는 우선 상담자는 폭력유형과 빈도, 원인과 결과, 대응방법 등을 파악하고 재발위험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해서 도피처로 피할 방법과 절차를 알려줘야한다. 결혼생활을 계속 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남편이 폭력을 하지 않을 의지와 결심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지가 있을 때는 각서를 받아놓는다. 만일 폭력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부부를 분리시켜서 상처치유와 회복을 돕는 집단상담과 폭력예방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폭력남편 중에 알코올문제나 도박문제, 의처증문제가 있으면 전문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폭력문제를 다룰 때 남편의 폭력을 아내가 유도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 이 주제를 잘못 다루면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을 상담자가 정당화시켜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인식시켜야 할 것은 부부간의 갈등이 악화되는 것은 부부공동의 책임이지만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전적으로 남편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폭력 남편들은 가부장적 사고방식을 지니며 분노조절과 공감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분노조절과 성역할 평등의식, 공감능력 증진을 위주로 하는 집단치료와 교육을 병행시켜야 된다. 그후에 폭력의 재발을 막고 폭력의 사이클을 끊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에게 부부관계 향상과 대화법, 갈등관리방법을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최규련외, 1997). 이때 주로 인지행동접근과 행동주의적 접근을 사용하나 원가족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대상관계이론과 다세대 접근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폭력문제가 습관화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치료를 의뢰해야 한다.

② 성 문제

부부간의 성문제는 성기능 문제와 변태적 성욕구문제로 구분된다. 성기능 문제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한 상식을 알고 도와줘야 하며 간단한 것은 성교육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다. 이때 책자, 비디오테이프 등의 정보를 이용하도록 도울 수도 있다. 성기능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는 매우 복잡하고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가지로 단정짓는 것은 경솔하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받도록 하고 신체생리적 요인이면 전문의에게 의뢰하고 아닐 때는 성치료 기관을 소개하는 것이 좋다. 변태적 성욕구문제는 개인의 문제이므로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하고 관계유지가 어렵다. 신경정신과나 성클리닉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③ 정신병리문제와 이혼 문제

의처증이나 의부증, 정신분열, 우울, 알콜중독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 간단히 진단하는 방법을 숙지하여 그에 따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전문상담가나 정신과의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만일 이혼에 대한 의사결정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결정을 내려주려고 하지 말고 내담자가 여러 결정에 따른 득실을 잘 생각하도록 돕고, 감정적 결정이 되지 않고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이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혼과 관련된 문제와 대책은 물론 이혼 관련법규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는 법률기관으로, 결혼지속의사가 있는 경우는 전문상담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자녀문제에 대한 지도방안

1. 상담 접근방법

- ① 의학적 접근 : 염색체, 신경계통의 이상, 뇌기능의 장애 등 기질적인 면에 원인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② 행동주의 및 사회학습론 접근 : 부적절한 조건과 자극의 연합, 모델링, 강화, 자기효능감에 문제가 있어 환경적 요구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적용한다.
- ③ 정신역동적 및 자아심리이론 접근 : 발달단계별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 욕구의 충족결핍으로 인한 죄책감, 자존감의 저하문제가 있는 경우 적용한다.

- ④ 가족상담 접근 : 가족의 역기능적인 체계에서 비롯되어 자녀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한다.

2. 자녀문제 상담시 주의점

각 발달단계에서 기대되는 발달적 특성 및 능력, 가족생활주기별 발달과업의 성취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자녀문제를 파악한다. 자녀문제 상담지도에서 공통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현재 자녀의 문제는 무엇인가?
- ② 왜 이 시점에 도움을 의뢰하는가?
- ③ 가족배경과 문제배경은 무엇인가? 즉 가족의 구성과 특성(성비, 가족형태, 직업, 경제사정, 건강상태), 자녀의 발달력, 가족원의 발달적 역사(부모, 조부모, 형제들의 어린 시절 경험, 부모의 미해결된 과제), 현재 가족의 상호 작용 형태(부부체계, 부모자녀체계, 형제체계), 부모의 양육행동과 의사소통형태 등을 파악한다.
- ④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해 온 방법들은 어떤 것이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2. 자녀문제 유형별 지도실제

1. 자녀교육 환경의 열악과 교육비 부담문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이농이 급증하는 원인을 해결하여 젊은 사람이 머물러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시설투자 와 등하교 버스,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열린 교육, 학교의 정보센터 기능강화, 우수한 교사의 확보가 요구된다. 그리고 농촌 고등학교의 교육이 농업외의 다양한 직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내용이어야 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문화시설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자금 융자와 대학진학 특혜를 젊은 사람

의 농촌 정착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2. 부모-자녀간 갈등과 스트레스와 자녀의 행동문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자녀의 갈등과 스트레스, 행동문제의 실태와 원인, 결과 등을 파악하고 부모가 자녀의 문제에 대해 재정의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도록 돕는다.

② 자녀문제에 대해 부모가 대처했던 과정과 그 효과를 파악하고 부모가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부모의 자녀지도 태도와 방법을 변화시킨다.

③ 단계적 개선을 목표로 하여 자녀와 부모 간에 작은 약속을 하고 이를 충실히 지키는 유관계약을 맺는다.

④ 부모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소유의식, 성적위주의 공부강요, 한풀이식 자녀 교육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녀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고 자녀의 심성과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목표를 두도록 돕는다.

⑤ 교사, 학교와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필요시 놀이치료기관이나 상담기관, 학습치료기관에 치료를 의뢰한다.

⑥ 자녀와 부모를 위한 대화교육, 자녀를 위한 집단상담, 성교육, 성적향상방법 교육, 부자캠프, 가족캠프 등을 통하여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이해와 자기이해를 증진시키고 적응을 돕는다. 이때 시청각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자녀의 장래와 결혼이 불투명한 문제

결혼과 장래가 불투명한 것은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에 주로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으로는 거시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으로 의식구조 전환과 농촌지역의 삶의 질 개선 및 문화수준의 향상노력을 통해 청장년층이 긍지를 갖고 직업생활을 하고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젊은이를 유인해야 한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조직적인 결혼상담과 교육을 통해 결혼성사와 결혼적응을 돕는 방법이 있다. 이때 가족 단위의 노력보다는 지역사회 단위로 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정규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노인문제에 대한 지도방안

1. 상담교육시 주의점

① 먼저 성년자녀의 이농이 극심하여 노인이 영세농에 종사해야 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급선무이고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과 경제대비 및 소득증대,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지원해줘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노인의 정서문제 해결에 우선해야 한다.

② 노인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특히 노인의 말을 경청하는 기술을 많이 활용해야한다.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알기 쉽게 교육해야 하며 자녀나 친척과 협조체제를 형성하고 문제에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체제를 연결한다.

③ 지역실정에 맞게 노인복지 서비스체제를 활용하여 지도한다.

2. 노인문제 유형별 지도실제

1. 경제적 문제와 일상생활 수행문제

노령수당, 농어민연금, 생활보호 등의 공적부조를 이용하도록 돕고 금융기관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노인이 자녀, 이웃, 친척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노인이 일감맞기 사업 같은 소득증대 사업에 참여하도록 돕는 방법도 있다. 특히 독거노인과 노인단독가구에 대해서는 상시 연락체제를 갖추고 유대관계를 맺는다.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단독가구를 위해서는 가정봉사원제도나 급식배달서비스, 콜서비스 등의 사회적 지원체계와 연계하여 돕거나 가사노동기기를 저렴하게 구입하도록 돕는 방법이 있고 집단 취사와 빨래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마련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에 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제도,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하여 노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거나 가정간호제도를 활용하여 만성질환 치료가 용이하게 한다. 또한 노인정에 여성노인을 위한 공간을 만

들고, 목욕탕이나 공동취사장, 빨래방, 노래방, 공동작업장, 독서실, 노래방 같은 부대시설을 만들고 예산지원을 해준다.

2. 정서적 문제

주로 상담과 교육을 통하여 자녀와의 갈등이나 고부간의 갈등, 정서장애 등의 문제해결을 도와서 만족한 노후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이를 위하여 노인복지종합센터가 지역마다 설립되어 편리하게 상담서비스와 교육이 가능하고 이동 도서 관서비스와 우편서비스, 금융서비스, 가정봉사서비스, 여가활동, 재활치료, 건강관리 등이 지역사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한다. 노인들이 서비스수혜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나 이웃, 마을에 서비스제공자가 됨으로써 보람차고 만족스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과 역할을 갖게 한다. 그리고 노인들의 자조집단 형성을 돕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친구나 이웃, 마을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비슷한 연령대의 문화적 공동체로서 동료감을 살리며 전통문화 계승에 이바지하도록 돕는다.

< 참고문헌 >

1. 김경미(1998). 농가의 가사분담 실태와 생활만족도. 농촌생활과학 19(1), 19-23.
2. 김계현(1997). 상담심리학. 학지사.
3. 김정순(1994). 농촌여성의 성역할태도와 스트레스 인지 및 디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계명대 석사학위논문.
4. 김주숙(1990).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와 가족. 1976-87. 한국여성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론. 까치.
5. 김태현(1996). 노년학. 교문사.
6. 농촌진흥청(1996). 농촌노인의 생활향상을 위한 연구 보고서.
7. 박인선·안지연(1995). 도시 농촌지역 어머니의 보육시설의 질적 기준에 대한 인식비교.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제 17권 121-136.
8. 박혜련(1997). 농촌노인의 식생활 지도. 농촌생활과학. 제 18권 3호. 41-47.

9. 백양희·최외선(1996). 농촌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대한가정학회지 34권 11호, 33-48.
10. 심미옥(1997). 농촌여성의 지위와 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양순미(1996). 농촌여성의 갈등원인, 관련변수별 갈등정도과 대처방안 연구. 농촌생활과학. 제 17권 3호. 15-19.
12. 옥선화·정민자(1994). 결혼과 가족. 하우출판사.
13. 윤복자·강혜원·조길수·손경희·곽동경·지순·김경희(1990). 농촌지역노인의 생활실태 조사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권4호, 65-86.
14. 윤순덕(1997). 농촌 기혼자녀부부의 노부모 부양실태. 농촌생활과학. 제 18권 3호. 23-26.
15. 이진순(1998). 농촌 청소년의 가족의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농촌생활과학 19(1), 24-28.
16. 전정숙(1994). 농업유형별 농촌여성의 역할과 지위에 관한 연구. 계명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정지훈(1989). 한국의 농촌 가족. 서울대출판부.
18. 조명희·조영희·심영·김대년(1997). 노인복지측면에서 본 충청북도지역 노인단독가구의 생활환경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권1호, 173-190.
19. 조영숙(1997). 농촌 가족생활교육상담 프로그램 요구도 조사. 농촌생활과학. 제 18권 3 호. 17-23.
20. 조록환(1997). 농촌노인의 여가실태 및 프로그램개발 방향. 농촌생활과학. 제 18권 4 호, 14-18.
21. 채용학(1994). 도서·벽지 국민학교 통폐합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72-73.
22. 최규련(1997a). 상담원리. 한국가족관계학회.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공동주

최 가족상담사 연수과정 상담이론 교재

23. 최규련 (1997b). 부부문제 상담 실제. 한국가족관계학회 · 한국가족상담교육 연구소 공동주최 가족상담사 연수과정 가족상담 실습교재.
24. 최규련 (1997c). 한국에서의 부부대화법 적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권 147-161.
25. 최규련 · 유은희 · 홍숙자 · 정혜정 (1997).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 프로그램 모형개발.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 관련단체협의회 ·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공동주최 학술대회 연구보고서.
26. 최양부 · 오내원 (1992). 농촌가족의 해체와 소멸: 충남부여군 S마을사례. 가족학논집 제4집, 175-194.
27. 최혜경 (1997). 노인기의 가족 및 사회관계. 농촌생활과학. 제 18권 3호. 36-40.
2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한국 농촌사회경제의 장기변화와 발전 조사결과 종합보고.
29. 한국여성개발원 (1993). 농촌가족의 변화와 지속에 관한 연구.